

시온 주보

제2526호
2024년 10월 20일(나해)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 주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의 포옹

작자 미상
12세기, 모자이크(부분)
몬레알레 대성당, 이탈리아 시칠리아



입당송 |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ㄱ, 3ㄴㄷ-4,5-6(㉠ 2 참조 또는 3ㄴㄷ)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음악과 춤 그리고 포옹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저는 서울 외곽에 살기에 명동성당 가는 길이 기쁩니다. 삶을 누리는 화사한 이들 틈에서 건다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부풀니다. 그런데 가끔 거리의 음악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웃음을 머금고 걷는 이들 사이에서 그들의 환희를 책망하듯, 심판과 지옥을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제가 아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들이 외치는 익숙한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거리를 걷는 평범한 이들의 기쁨에 함께하시고, 이들의 실수에 아파하시며, 화려함 뒤에 숨은 공허함도 안아주시는 분일 텐데 지옥을 외치는 목소리 앞에서 저는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그 외침이 흥겨운 음악 소리를 뒤흔들듯, 우리가 아는 좋은 하느님도 덮어버릴까 봐 초조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이 아름다운 약속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의 사명인 선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선교인지 떠올려 봅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분노의 순간이든 고통과 절망, 환희와 반성이 교차하는 모든 시간에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앞에 비추어보며 말이지요.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 들은 그 외침이 우리가 할 선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선교는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

과 비슷할 겁니다. 또 그 음악에 맞춰 추는 춤에 가깝습니다. 좋은 음악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춤이 우리가 할 선교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선교는 누군가를 끌어안은 포옹과 비슷합니다. 그가 내 품에 안기기까지 걸은 길과 흘린 땀, 마음속에 자리한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는 끌어안음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억박지르기보다 물려나심으로, 승리의 함성보다는 새벽의 침묵으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주일을 맞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구의 교세가 아닐 겁니다. 교우들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과 하느님 덕분에 행복한 이들의 행복감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일치한 단 한 명의 사람으로도 교회와 세상을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 살피야 하는 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에 맞춰 추는 나의 춤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의 귀에 들리는 그 좋은 음악이 그들에게도 들린다는 증거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추는 춤에 함께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춤에 감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인해 기쁘다면,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은 나를 넘어 이웃과 낯선 이를 채우고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의 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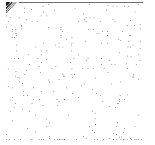
두 사도께서 활동할 당시의 교회는 할례에 관한 논쟁으로 자칫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오늘 성화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방 세라피나 | 회복자

매듭을 푸시는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동네 성당 마당에서 놀던 기억이 전부였던 제게, 처음으로 미사에 참여한 날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님의 강론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저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축복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고, 그 덕분에 새로운 이름과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독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저 자신을 돌보는 힘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고, 제 아이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독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제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제 고통에만 갇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직장 동료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사랑을 줄 줄 몰랐던 어머니, 폭력적인 전남편 등 주변의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이의 존재조차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첫 미사에서 흘렸던 눈물은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의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편지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라고 답장에 쓴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고통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자 사이의 매듭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자리로 돌아왔고,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받아본 어버이날 편지에 적힌 글은 엄마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매듭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잘 키워줘. 잘 클게... 나... 잘 크고 싶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할 날을 기대하며, 그를 더 깊이 사랑하고 돌볼 것을 다짐합니다.

또, 이제는 제 어머니의 삶도 이해하게 되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회복의 여정을 함께해 준 가족들과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지금의 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희망을 다른 중독자들과 나누며 그들의 회복 여정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낱
교
리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을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윤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애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의 헤아릴 길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 성 바오로 6세 교황님 -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마르 14,72)



이영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더니 갑자기 허둥지둥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도망을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베드로의 뒤통수로 마치 그를 비웃는 듯 울어대는 새벽닭의 소리. 행여 누가 볼까 봐 자신도 모르게 어두움에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면의 소리가 그를 짓누릅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르 14,31) 다른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 두 손을 붙든 뒤고서 스승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맹세합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스승님을 버렸습니다.

순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 입을 맞추던 유다 이스카리옷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 녀석이 스승님을 배반한 거야. 그놈이 스승님을 팔아넘긴 거라고!’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만 아니었다면, 스승님은 잡혀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무서워, 베드로는 스승님을 내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달려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3년이나 되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스승님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 믿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왜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스승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스승님이 그곳에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택의 안뜰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몸을 돌리고 맙니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마르 14,67) 한 여자가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녀 뒤에 서 있는 사람들과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터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잘 알 것이란 생각에 온몸은 굳어지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 갑니다.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이러다가는 모든 게 들통이 나버려 자신도 잡혀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의 집요한 추궁에 그렇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스승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사제의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 순간 닭이 울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르 14,30) 내가 고통받을까 두려워,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할까 겁이나 스승님을 모른다고. 주님의 수난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우리도 흘려야 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신명 6,18 참조)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판관 3,12)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할 법과 규정들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받아, 돌 판에 새겨 전해주었다고 하는 십계명도 이 책에 담겨있지요. (신명 5,10 참조)

신명기가 말하는 주제를 요약하면,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받게 되지만, (신명 4,1 참조) 반대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 8,19 참조) 즉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구약성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 신학을 토대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신학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을 두 개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신명 6,18)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판관 3,12) 이 구절들에서 ‘주님의 눈에’ (עַל עֵינֵי יְהוָה)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해져 내려온 전통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명을

주신 하느님의 존재, 나아가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분의 눈에 드는 좋은 일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성경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이들이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눈에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염려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의식해야 할 하느님의 시선은 너무 쉽게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나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나를 진리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으로 나아감에 있어 신경 써야 할 시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시선 하나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분의 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인터뷰!

청소년동반자 기초 연수

2024년 2학기 중고등부 청소년동반자 기초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동반자 기초 연수는 청소년동반자가 하느님께 부르심 받았음을 알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에 함께한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동반자
표정수 미카엘라
(성북동성당)



연수생
안지현 로사리아
(양천성당)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표 미카엘라 성북동성당의 8년 차 교사 표정수 미카엘라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연수생 선생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생활팀’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 로사리아 양천성당 신입 교사인 안지현 로사리아입니다. 본당에서 고등부 1학년과 CYA학생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청소년동반자 기초 연수 동안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다시금 돌이켜볼까요?

표 미카엘라 연수생 선생님들과 걱정, 다짐 등을 나누면서,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각자의 본당에서 청소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안 로사리아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본당에서 온 선생님들을 만나 신기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신앙생활과 교사로서 해온 역할을 되돌아보며 이곳에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로사리아 선생님은 최우수 연수생 (MVP)으로 선정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 로사리아 제가 MVP로 선정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게 너무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주님 곁에서 많은 걸 느끼며 알아나갔던 과정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동반자 기초 연수 양성을 통해 하느님께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되나요?

안 로사리아 청소년동반자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자체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인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표 미카엘라 파견 미사 때 적극적으로 다가와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며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며 나누는 인사와 짧은 한마디가 쌓여 큰 의미로 남게 되었어요.

연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교사로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표 미카엘라 후배 교사와 함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교회가

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 로사리아 연수 동안,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 순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교사회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학생들을 이끌고 사목하는 청소년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네요.

“나에게 청소년은 ‘_____’이다.”

표 미카엘라 나에게 청소년은 ‘바다’다! 잔잔하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도 하지만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미지의 존재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주일학교가 여러분의 고달픈 일상에서 벗어나 기쁨과 사랑,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로사리아 저에게 청소년은 ‘비밀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제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비밀상말이지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새롭게 되새기며 봉사하겠습니다.



영화 '애프터 양'

애프터 크리스트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2022년 작, 감독 '코고나다'

필립 K. 딕의 공상과학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에서 안드로이드를 사냥해서 현상금을 버는 주인공 데커드에게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구분하는 시험을 받는 레이첼은 “이 시험이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알아내는 시험인가요? 아니면 내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내는 시험인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구분 짓는 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 지어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려는 소설 속 미래 사회의 태도와 다르지 않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은 ‘테크노휴먼’이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 ‘양’(저스틴 H. 민 분)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탐구를 펼칩니다. 극중 백인 남성 제이크(콜린 패럴 분)와 그의 부인인 흑인 여성 카이라(조디 터너스미스 분), 부부가 입양한 중국인 딸 미카(말레아 엠마 찬드로위자야 분)와 미카의 오빠 역할을 맡기기 위해 부부가 구입한 양은 한 가족을 이룹니다. 여기서 영화는 양이 고장 나는 상황을 통해서 왜곡된 인간됨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나와는 다른 존재를 철저히 구분 짓는 태도입니다.

다양한 이윤 추구 및 욕망 충족의 과정 속에서 민족, 국가, 인종, 종교 간 갈등 및 각종 차별 등을 쉬지 않고 겪어온 인류는, 서로를 철저히 구분 짓고 타자를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하려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양을 대하는 등장인물들

의 지극히 인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인간이 본능처럼 버리지 못하는 서로를 구분 짓는 태도를 상징하듯 다가옵니다. 이들은 고장난 양을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가전제품처럼 여기고 철저히 경제적인 잣대로 양에게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하지만 양은 자신이 터득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구분 짓는 태도가 인간 본연의 습성이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해 나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양의 시선에는 차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양의 메모리칩 속 영상화된 기억들에는 양이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호기심이 드러납니다. 모두를 따뜻하게 품고 싶은 의지로 가득한 양의 시선이 담긴 그의 기억은 가족들의 마음에 짙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인간됨의 기준이, 모든 것을 나와 철저히 구분 지으려는 인류의 습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양의 따뜻한 시선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증언하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떠올려봅니다. 어느 누구도 구분 짓지 않으며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시선, 불의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한 용서의 시선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시선은 복음서라는 이름의 기억저장소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시선에 감화되고 그 시선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9월 10일 회의 결과)

- ① 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서 개발 사업' 결과물인 종교 교과서 《삶과 종교》의 원고(주교회의의 2023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가 심의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8월 27일 인정 도서 승인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 ② 주교회의의 2024년 추계 정기총회 연수 주제로 '시노드를 위한 한국 교회 본당 사제 모임'을 선정하고, 노우재 신부(부산교구)를 강사로 초대하여 2024년 9월 2일(월)-4일(수) 왜관 성 베네딕도 문화 영상 센터에서 열렸던 본당 사제 모임 등에 관하여 듣기로 하였다.
- ③ 교황청 홍보부의 요청에 따라,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종합 보고서>에서 제기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교'(제17장)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주교회의의 사회홍보위원회가 작성한 답변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서 제2회기(2024년 10월 2-27일)를 위한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보내와 이 문서들의 우리말 번역문을 배포하였다.
- ④ 교황청 복음화부에서 2025년 희년 예식서(개막·폐막 예식과 미사 고유 기도문·독서 등 수록)를 보내왔고, 우리말 번역문(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번역)을 교황청 경신성사부의 추진 절차를 밟은 후 배포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를 위한 준비,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사목 문서 수정안 심의, 방유룡 레오 신부 시복 추진에 관한 논의, 전국 단체 회칙 개정안 심의 등 주교회의의 2024년 추계 정기총회에 서 다룰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하였다.

사목평의회 위원 선출위원회

위원장: 이정호 신부(대신학교장)

위원: 최성기 신부(중서울지역 지구장), 윤일선 신부(동서울지역 지구장), 박규흠 신부(서서울지역 지구장), 김문태(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추천), 박은영(여성연합회 추천), 강현석(본당 총회장 모임 부회장)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 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43년 10월 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94년 10월 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외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 알림

시복시성 기원미사(203회)

이 달의 하느님의 중 '윤평성' / 문의: 02)2269-0413
때, 곳: 10월22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성강의

때: 10월28일~11월18일 매주(월) 19시30분~21시(4주)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회비 없음) / 문의: 02)777-2013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참가 신청: 구글 폼으로 10월20일(월)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s://forms.gle/ukSXvEydhFD7hwZ57>)

1강	10월2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모신심영성 / 조동원 신부(가톨릭신학대학 교수)
2강	11월4일(월) 오후 7시30분~9시 현대 영성가 토마스 머튼과의 만남 박재찬 신부(베네딕도회 왜관 분원장)
3강	11월11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와 영성 기경호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4강	11월1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와 영성 이규성 신부(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장)

143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마전동 본당
문의: 02)727-2420

4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터카-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5년 1월6일~17일(11박12일)
지도: 김택재 신부 / 주관: 성서못자리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문의)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데미

교육명: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탈리아어 따라잡기, 우울과 불안 강좌 외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교리문화연구회 제5회 정기회원전: 2, 3전시실
염동국 신부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3일(수)~31일(목)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집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5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2025 이스라엘 8일 피정: 11월12일~19일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4 명동 겨울 축제> 관련 공개입찰 공고

12월24일(화)~25일(수) 중 진행될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운영'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문의: 02)727-2047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참조

<명동, 겨울을 밝히다> 관련 공개입찰 공고

11월30일(토)~2025년 1월6일(월)까지 진행될 'LED 장미 정원의 설치, 관리'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문의: 02)727-2038 / 자세한 내용은 갤러리1898 홈페이지(<https://gallery1898.catholic.or.kr/gallery1898>) 참조

인준단체 알림

모임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탐방

때: 국내 12월7일~10일(부산 8곳·마산 6곳), 12월14일~17일(대전 23곳)·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베트남 수도원 2025년 2월7일~11일(다낭·라방·짜까우)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15일(금)~18일(월)·12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일아기교회

강사: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10월25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 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 오희동, 찬양, 고해성사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7지구 성령 하루 피정

때, 곳: 10월28일(월) 9시30분~16시30분, 주엽동 성당 대성전 / 강사: 윤민재 신부, 박희전 신부
미사: 김경모 신부 / 치유기도: 두현자
회비: 5천원 / 문의: 010-9697-9004, 010-3325-2871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1일(금)~3일(일) 2박3일 / 10월24일까지 접수
곳: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동)
문의: 02)333-9898 (월~금) 한국CLC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0월22일 이상기 회장 10월28일 음악 피정(인천 체나콜로)

성모 승천 수도회 십자가도보성지 순례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사전 접수 필수 / 문의: 010-3080-9104

11월16일(토)	천진암·양근성지(수원교구)
12월21일(토)~22일(일)	김범우 순교자 성지 외(부산교구)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피정 및 강의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 문의(접수): 02)3276-7794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희망의 순례자들 / 송봉모 신부
때, 곳: 11월14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문의(접수): 02)3276-7799(iispress12@gmail.com)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11월15일(금)~17일(일)	허규 신부(서울대교구)
12월20일(금)~22일(일)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신우식 신부(원주교구)
2025년 2월14일(금)~16일(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1월28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ICPE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때, 곳: 11월22일 저녁~24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대상: 가톨릭 젊은이 청장년
문의(접수): 010-5646-6594 / 카카오톡 플친: ICPE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5일~27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센터·추척)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2025년 1월17일~19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18일~21일·11월24일~27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23일~25일·2월14일~16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산·해님·이·해돋이)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1월21일~23일·12월1일~3일·12월6일~8일·12월14일~16일, 한라산 포함 2025년 1월11일~13일·1월16일~18일·1월20일~22일, 추자도 포함 11월16일~19일·11월25일~28일·3월13일~16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1일(한라산·해님·이·해돋이)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1월2일(토)~3일(일), 12월21일(토)~22일(일)
3박4일 10월24일(목)~27일(일), 11월28일(목)~12월1일(일)
8박9일 11월14일(목)~22일(금), 12월26일(목)~2025년 1월3일(금)
40일 12월14일(토)~1월22일(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1월4일~12월9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11월4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품음 1	이정순 수녀
11월11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김경진 신부
11월18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이재호 신부
11월25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김석훈 신부
12월2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조용준 신부
12월9일(월)	봉헌의 생활화	양창우 신부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1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대침묵)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신청	미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시다
	단체 피정(자차·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문의: 02)324-0852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희망의 순례자들 / 말씀: 조성품 담당 신부
때, 곳: 11월3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 문의: 02)705-4711

주제: 전례와 신앙체험-미사를 중심으로 / 회비 없음
때, 곳: 10월28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구정모 신부(예수회)

싱잉볼 힐링데이

내용: 섬, 에너지회복, 사운드 치유 / 강사: 한세진
때: 11월8일(금) 10시·13시·19시 / 회비: 각 3만원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ijs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홍보주일 담화문 세미나 개최

주제: 교황 담화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소통과 AI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 문의: 010-8724-2012
때, 곳: 10월25일(금) 14시~17시, 가톨릭회관(명동) 2층 강당(205·3호) /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5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2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4일(월)~15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11월4일(월)~5일(화) 8시30분~18시,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2552, 2558
10월25일(금)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등록 6만원
계좌: 우리 1005-500-525250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8일~2월1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월28일(월)~11월10일(일) / 면접: 11월22일(금)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모집

서울대교구 우리소리합창단(국악성가)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강사: 김선미 명창, 신기환 바리톤 / 010-3909-1203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0월23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2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0월25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초대강사: 박희전 신부(작은형제회)
때, 곳: 10월21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205-3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가톨릭남성합창 페스티벌

때, 곳: 10월24일(금) 19시30분, 아현동성당
전석 초대 /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 ·서울 목동(파전)

까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2024년 서울대교구 전례꽃이 연구회 제15회 묵상 전시회

주례: 전호영 신부 / 문의: 010-5236-5493 정은희 회장
개막미사: 10월31일(목)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폐막미사: 11월1일(금) 16시

제11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4일(목)~27일(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전철 4호선 명동역 6·7번 출구)
주제: 조화로운 삶 / 카탈로그: caff.kr/catalog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수녀회)

코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일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가톨릭성가페스타 2024년 축제 초대

때, 곳: 11월2일(토), 서강대학교 메리홀대극장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 주최: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1부	14시-모차르트대관식 미사곡 연주 / 지휘: 이상철 신부
2부	16시30분-가톨릭성가대코랄콘서트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
물 참조 / 문의: 031)850-1427

'나팔을 불어 희망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

25희년을 바라보며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5주년 기념 음악회 / 연주: 서울 가톨릭합창단, 부산 가톨릭합창단
때: 11월11일(월) 20시 / 전석 초대
곳: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10-3211-5195 (문자) 가톨릭합창단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곶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한민족통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0월29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편집국	전문 편집 / 복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 편집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10월27일(일) 16시 / 수시	신내동성당 수녀원	010-8446-3217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10월27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월9일(토) 14시~10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0월27일(일)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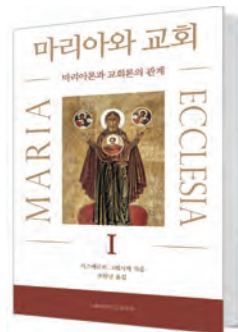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베르나데트의 노래

프란츠 베르펠 지음
파람북 | 680쪽 | 1만9천5백원
문의: 031)935-4049, 010-6221-1794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평범하기 그지없는 14세의 산골 소녀 베르나데트 앞에 한 여인이 신비로운 존재를 드러낸 은총의 사건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베르나데트의 길지 않은 생애를 현미경 같은 시선으로 생생하게 추적한다. 기적의 신비보다는 당대 프랑스 사회의 위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진실과 종교의 본질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신간

마리아와 교회
마리아론과 교회론의 관계

기스베르트 그레스카케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752쪽 | 3만8천원
문의: 02)740-9718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교가 자리매김하던 첫 시기부터 서로 밀접한 관계기에, 초대교회의 시작과 정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마리아에 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교의사적 흐름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마리아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신간

미소한 그대가 희망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 208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대림과 성탄 시기는 우리 안에 오실 하느님을 희망으로 기다리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의 신비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다. 저자는 이 영적 여정 안내서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이 대림 제1주일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봉헌 축일에 이르기까지 대림과 성탄 시기를 뜻깊게 보냄으로써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신간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18
유딧기

강수원 지음
바오로딸 | 352쪽 | 2만3천원
문의: 02)944-0944

유딧기는 탁월한 성덕과 용기를 지닌 유다인과 부유딧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다. 유딧기는 역사서에 속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신앙심을 북돋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는 해학과 풍자, 역설과 아이러니, 비유, 신화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학 기법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연주회

아퀴나스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

때, 곳: 10월 30일(수) 19시 30분, 서초동성당
문의: 010-8000-3194 총무
입장료: 전석 2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4명 50% 할인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아퀴나스합창단은 한상우 지휘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연주한다. 이 합창곡은 '메시아와 더불어 헨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1부: 탈출기, 2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음악회

제25회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성음악발표회
희년을 노래하다

때, 곳: 10월 25일(금) 20시, 도림동성당
문의: 010-5074-6842 / 전석무료

다가오는 2025년 희년을 맞아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는 가톨릭 신자 작곡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그 결실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담은 음악을 통해 교회의 걸음에 함께하고자 한다. 12명의 작곡가들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루멘챔버악기어 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을 예정이다.